

김용환의 일본에서의 작품 활동 연구

: 1930~40년대 삽화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삽화가로서의 김용환과 기타 코우지

1. 프로 작가 데뷔와 『니혼쇼넨』
2. 삽화가로서의 다양한 활동
3. 삽화가 기타 코우지의 평가와 그 한계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김소원

초 록

김용환은 1940~60년대에 활동한 한국의 주요 만화가의 한명이다. 김용환은 어린이 만화에서 시사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그렸다. 뿐만 아니라 김용환은 해방 후 한국의 만화 잡지와 만화신문의 발행을 주도 했고 한국만화의 선구자로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김용환은 만화뿐만 아니라 잡지와 신문, 소설의 삽화, 동양화, 역사화, 캐리커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미술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것이 계기가 되어 김용환은 일본에서 기타 코우지(北宏二) 라는 이름의 삽화가로 데뷔하게 된다. 이후 김용환은 일본의 유명 출판사의 잡지와 소설의 삽화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김용환의 일본 활동에 대한 간단한 이력과 몇 장의 삽화만이 소개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작품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에 소개 되지 않았던 김용환의 일본 활동과 작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김용환이 삽화가 기타 코우지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잡지에 어떠한 작품들을 실었는지, 그리고 삽화가로서 기타 코우지의 평가에 대해서도 서술해 보겠다. 본 논문은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타 코우지의 이름으로 남겨진 잡지와 단행본의 삽화들에 대해 고찰 했다.

본 연구를 통해 김용환은 일본에서 다양한 출판사와 잡지에서 활발하게 활동 했으며 김용환이 삽화를 그린 많은 잡지들이 유명 출판사에서 간행된 인기 잡지였던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김용환이 일본에서도 그 실력을 크게 인정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김용환의 삽화 상당수가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에 그려졌다. 이 시기는 일본이 국가 총동원법을 내세워 전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결 시키던 시기로 출판물도 엄격한 검열을 받았다. 이 시기 출판물의 대부분은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이었고 김용환의 삽화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김용환의 일본 활동에 있어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김용환의 일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발굴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김용환의 작품에 대한 평가와 김용환의 다양한 이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키워드 : 김용환, 기타 코우지, 北宏二, 만화

I. 서론

2012년 6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만화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가 일반에게 공개 되었다. 1946년 5월 1일 발행된 『토끼와 원숭이』는 동물을 의인화 해 글과 그림을 병기한 만화적인 형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¹⁾. 2013년 2월 『토끼와 원숭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었다²⁾. 『토끼와 원숭이』는 아동문학가 마해송의 원작을 김용환(金龍煥)이 만화로 각색한 것이다.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만화 단행본의 작가인 김용환은 만화뿐만 아니라 삽화, 동양화, 역사화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활약했고 특히 1940~50년대 한국 만화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만화가로 활동했던 기간은 짧았지만 그가 한국 만화사에 남긴 흔적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김용환은 1912년 경상남도 진영에서 태어나 미술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가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며 일본 출판사를 통해 삽화가로 데뷔한다. 그 후 한국에서 만화가로 활동하며 어린이 만화에서 시사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발표하며 큰 인기를 누린다. 뿐만 아니라 만화잡지 『만화행진3)』과 주

* 본 논문은 2013년 10월 11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2013 경남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학술행사 - 코주부 김용환의 작품세계와 만화사적 의의’에서 김소원의 발제문 ‘일본 만화사에서의 기타코우지(김용환)의 위상과 한계’를 수정, 가필 한 것이다.

- 1) 김영환, “국내 최초 만화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 공개”, 『한겨레 뉴스』, 2012년 6월 21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39079.html
- 2) 채지은, “‘고바우 영감’ 등 만화 3편 등록문화재 지정”, 『한국일보 뉴스』, 2013년 2월 8일,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302/h2013020821031991560.htm>
- 3) “만화 전문잡지로 1948년 9월 15일 타블로이드판으로 창간됐다. 『만화행진』은 해방 후 일본서 귀국, 신문만화 연재와 어린이 만화 등을 창작했던 김용환이 임동은과 함께 만화를 맡고, 삽화 등은 전속화가를 따로 두어 창작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용환은 『만화행진』의 발행에 대해 “수필가 김소운(金素雲, 1907-1981, 본명 敎重, 해방 뒤 素雲으로 개명, 필명은 三誤堂)과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다.”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pp.25~26.

간신문 형태의 『만화신문4』의 발행을 주도 하는 등 해방 후 척박한 한국 만화시장의 성장과 만화 독자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후 김용환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대 되어 아동만화, 시사만화, 캐리커처, 펜화, 동양화, 잡지 삽화와 단행본의 삽화에 이르기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은 그 장르도 발표 매체도 다양했다.

1959년 무렵 일본으로 거처를 옮긴 후 김용환은 만화 보다는 삽화와 동양화 작업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작품 활동의 시기를 뚜렷하게 나누어 구분 지을 수는 없으나 대략적으로 1950~60년대에는 잡지와 신문 등의 매체에 펜으로 정교하게 그린 삽화를 다수 발표 했고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동양화풍의 컬러 일러스트를 다수 발표한다. 특히 미 극동사령부에서 발간한 공보지인 『자유의 벗5』에 실린 김용환의 삽화는 뛰어난 색감과 섬세한 묘사를 보여준다. 1972년 유엔군 사령부에서 발행한 달력에는 표지까지 총 13장의 그림에서 조선시대 군대의 전투 장면과 행군장면, 화랑을 연상시키는 그림 등 다양한 역사화를 볼 수 있다. 미군 극동사령부에서의 근무가 끝난 후로 김용환은 199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잡지 연재와 같은 정기적인 작품 활동은 거의 하지 않게 된다.

김용환에 대해 만화 연구가들은 “한국 만화의 선구자”이자 “우리 문화를 빚어낸 그림꾼6)”, “3박자를 갖춘 만화계의 대

-
- 4) “『만화뉴스』는 김용환이 당시 상공일보에 재직 중이던 영업 담당 송태일을 영입해 발행을 시작한 것이다. 김용환은 이 만화신문에 대해 “주로 시사만화로 채워졌으며 여기에 활동한 작가로는 본인을 비롯, 김용환, 신동헌, 김의환, 이영춘이 있었고 초창기에는 평균 4만 5천 부를 발행하는 등 해방 이후 신문발행사상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다.” 고 주장하고 있다. (중략) 『만화신문』은 송태식, 신동헌, 임동은 등이 김용환과 함께 『만화뉴스』를 떠나 독립 발행한 만화전문지였다.” - 손상익, 앞의 책, pp.27~28.
- 5) 1955년에 창간되어 1970년대 초반까지 발행된 월간지. 교양, 시사, 화보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학교, 역, 은행 등 공공장소에 배포되었다. 김용환은 1959년부터 1972년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미 극동사령부에 근무하며 동 잡지의 전속화가로 활동한다. 당시에 표지그림으로 사용된 김용환의 삽화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풍습과 풍경, 전래동화 등을 소재로 했다.
- 6) 부천만화정보센터 엮음, 『코주부 김용환의 재발견 - 三八線 불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 현실문화연구, 2005

부” , “한국의 데즈카 오사무가 될 수 있었던?)” 만화가. 그리고, “한국 현대 만화의 선구자⁸⁾” 등으로 평가한다. 1983년에는 자서전인 『코주부 표랑기』가 출판 되었고, 1986년과 1990년에는 삽화집인 『한국의 풍속사』가, 1991년에는 펜화를 모은 『코주부 김용환 펜화집』이 출판되었다. 2005년에는 김용환의 대표작인 『코주부 삼국지』가 부천만화정보센터(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복간되었다. 그리고 『코주부 삼국지⁹⁾』의 복간과 함께 김용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도한 『코주부 김용환의 재발견 -三八線 블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가 출판되는 등 김용환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고도 체계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김용환이 프로 삽화가로서 자신의 그림 인생을 시작한 일본에서의 활동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가 일본에 유학해서 미술을 공부 했고 일본의 유명 출판사에서 삽화가로 활동했다는 정도의 간단한 이력과 몇 장의 삽화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일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두 개의 상반된 시선이 존재 한다. 일본에서 유명한 삽화가로 활동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의견과 함께 그의 친일 활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김용환의 일본 활동을 조명 해 보고 코주부의 작가 김용환이 아니라 기타 코우지(北宏二)¹⁰⁾의 작품세계와 그 평가에 대해 살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기타 코우지로서의 김용환에 대한 새로운 평가이자 기타 코우지 연구에 대한 제안이다.

본 논문은 일본 국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기타 코우지라

7) 박기준, 『박기준의 한국문화야사』, 부천만화정보센터, 2009

8) 이용철, 「한국현대만화의 선구자, 코주부 김용환」, 『金海文化』, 통권 제 26호(2008), pp.39~48.

9) 1952년 11월부터 1955년까지 월간지 『학원』에 연재되었다. 연재가 종료된 후 3권의 단행본으로 발행되는 등 높은 인기를 누린 작품이다.

10) 김용환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필명.

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 기타 코우지의 이름으로 발표된 삽화는 1935년부터 1965년 사이에 발행된 잡지와 단행본에 실린 것들로 잡지 103건, 단행본 16건이 검색되었다. 본 논문에서 인용된 자료는 모두 일본 국회 도서관의 소장 자료이며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하거나 검색 시스템에서 자료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삽화가로서의 김용환과 기타 코우지

1. 프로 작가 데뷔와 『니혼쇼넨』

일본에 유학을 간 김용환은 가와바타 미술학교¹¹⁾(川端画学校)를 거쳐 지금의 무사시노 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学)의 전신인 테이코쿠 미술학교¹²⁾(帝国美術学校)를 다녔다.

가와바타 미술학교와 테이코쿠 미술학교에서 그림을 배운 김용환은 기타 코우지라는 필명의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한다.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기타 코우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월간지 『니혼쇼넨(日本少年)¹³⁾』 1935년 3월호에서이다.

『니혼쇼넨』 1935년 3월호에 실린 「사자 왕 나폴레옹(獅子王ナポレオン)」과 「하코네산(箱根山)」이라는 두 편의 시에 각각 삽화가 실렸는데 삽화의 담당 작가로 기타 코우지의 이름이 올라 있

11)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画学校)는 1909년 일본화 화가 가와바타 교쿠쇼(川端玉章)가 설립한 사립 미술학교로 도쿄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와바타 미술학교는 일본화 화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1913년에는 서양화 전공 과정도 설치되었고 전문적인 회화 교육을 실시 해 태평양 전쟁 중에 폐교 될 때까지 많은 화가를 배출 했다.

12) 테이코쿠 미술학교는 1929년 설립되어 1935년 테이코쿠 미술학교와 타마테이코쿠 미술학교(多摩帝国美術学校 현 타마 미술대학)로 분리되었다. 이후 테이코쿠 미술학교는 1948년 무사시노 미술학교(武蔵野美術学校 현 무사시노 미술대학)로 개명 했다. 테이코쿠 미술학교는 각종 미술 전문학교들이 설립되던 시기에 보다 공적인 기관으로서의 사립 미술학교를 목적으로 1929년 설립 되었다. 이 미술학교는 설립 되던 해 21명에 불과 했던 학생 수가 설립 5년 만에 436명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미술학교의 하나로 성장 했다.

13) 『니혼쇼넨』은 지즈코노니혼샤(実業之日本社)에서 1906년 1월 창간한 소년잡지로 1938년 10월 폐간되었다.

다. 두 삽화에서 김용환은 전혀 다른 화풍을 보여 준다. 「사자 왕 나폴레옹」에서는 간결한 선을 사용 해 전쟁 장면을 표현 했지만 「하코네산」에서는 짙은 펜 선으로 산의 풍경과 인물을 묘사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1. 사자 왕 나폴레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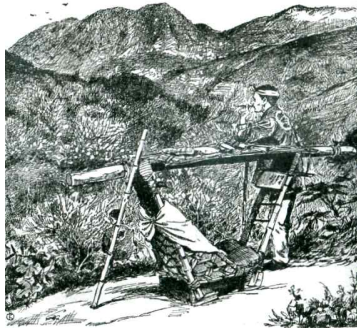


그림 2. 하코네산¹⁵⁾

김용환은 1년 후인 1936년 2월호부터 1937년 3월호까지 『니혼쇼넨』에 연재된 니노미야 이헤이(二宮伊平)의 소설 「소년 행진곡(少年行進曲)」의 삽화를 담당했다 <그림 3>. 단발성 삽화가 아니라 매 호 연재되는 소설의 삽화를 담당했다는 것은 김용환이 본격적으로 삽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고 잡지 편집부로부터 어느 정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김용환은 「소년 행진곡」의 삽화뿐만 아니라 잡지에 실린 시, 기

14) 『니혼쇼넨』, 1935년 3월호, pp.116-117.

15) 『니혼쇼넨』, 1935년 3월호.

사 등의 삽화와 칼라 일러스트 작업에도 간간히 참여 했는데 「흑 표범과 큰 뱀(黒豹と大蛇)」과 같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운 칼라 일러스트에서는 김용환의 박진감 있는 필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그림 3. 소년 행진곡¹⁶⁾



그림 4. 흑 표범과 큰 뱀¹⁷⁾

김용환이 처음으로 잡지의 삽화가로 활동을 시작한 잡지 『니혼쇼넨』은 아동 대상의 잡지는 거의 교양잡지와 문예지였던 시대에서 벗어나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아동 잡지가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¹⁸⁾.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의 도입과 함께 문맹률이 낮아진 1800년대

16) 『니혼쇼넨』, 1937년 3월호, pp.246-247. (부분)

17) 『니혼쇼넨』, 1936년 8월호.

18) 上田信道の児童文学ホームページ, <http://nob.internet.ne.jp>, 上田信道 “大衆少年雑誌の成立と展開—明治期「小国民」から大正期「日本少年」まで—”, 『国文学』, 2001. 5

말 소학교 학생을 주 독자로 하는 다양한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 잡지가 상업주의에 기반을 둔 대중적인 잡지로 변화하기 시작 했을 무렵 독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던 잡지가 바로 『니혼쇼넨』이었다.

『니혼쇼넨』의 지면은 소년소설, 모험소설과 논픽션, 위인전기, 과학 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잡지 구성은 이후의 소년잡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니혼쇼넨』은 1924년 1월호의 발행 부수가 30만부에 이를 만큼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다. 『니혼쇼넨』을 비롯해 당시의 아동잡지들은 읽을거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 읽을거리에는 삽화가 곁들여져 있었다.

이러한 잡지의 삽화는 잡지에 게재 된 소설이나 시, 그리고 기사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립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의 아동잡지와 소년 소녀 잡지의 표지는 인기 작가가 컬러로 그리는 경우가 많았고 잡지의 권두 화보를 인기 작가에게 맡겨 잡지의 판매고를 높이기도 했다. 일부 인기 삽화가들은 잡지의 판매 부수에 영향을 줄 만큼 독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삽화가들의 인기를 말 해 주는 한 가지 사건으로 들 수 있는 것이 1924년의 이른바 ‘카쇼 사건(華宵事件)’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의 대표적인 삽화가의 한 명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화가 다카바타케 카쇼(高畠華宵)가 원고료를 문제로 코단샤(講談社)의 잡지 『쇼넨 쿠라부(少年俱樂部)¹⁹⁾』의 일을 그만 두고 『니혼쇼넨』과 계약을 맺는다. 다카바타케 카쇼의 이동과 함께 『쇼넨 쿠라부』의 독자들이 대거 『니혼쇼넨』으로 이탈 했다²⁰⁾.

19) 김용환이 활동한 잡지 중 가장 많은 삽화를 그린 『쇼넨 쿠라부』는 1914년 창간되어 1962년에 폐간된 소년잡지로 소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의 소년을 주요 독자로 했다. 창간 초기에는 『니혼쇼넨』의 인기에 미치지 못했지만 1933년 편집장이 바뀐 것을 계기로 판매 부수가 비약적으로 증가 해 1936년에는 약 75만부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쇼넨 쿠라부』는 당시의 소년잡지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인기를 누렸으나 만화 전문 잡지가 창간되면서 코단샤의 주간 만화 전문지인 『주간 소년 매거진(週刊少年マガジン)』과 합병 되어 1962년 12월호를 끝으로 폐간된다.

이와 같이 삽화가의 영향이 컸던 만큼 당시의 잡지 편집부에서는 실력 있는 신인 작가를 찾아내 발굴 하고 기용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당시의 인기 잡지인 『니혼쇼넨』에 두 컷의 그림이 실렸을 뿐인 신인 삽화가인 김용환이 1년 후 같은 잡지에 1년이 넘게 연재된 소설의 삽화를 담당했다는 것은 그가 프로 작가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삽화가로서의 다양한 활동

1937년 6월 이후 잡지가 폐간될 때까지 『니혼쇼넨』에서는 더 이상 기타 코우지의 이름을 볼 수 없으나 1938년 6월부터 코단샤의 인기 소년 잡지 『쇼넨 쿠라부』에서 다시 기타 코우지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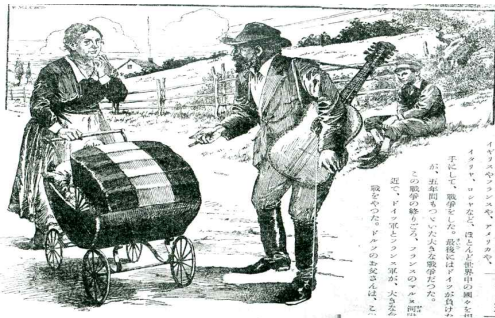


그림 5. 이 깃발 아래에서²¹⁾

김용환은 1938년 6월부터 1941년 8월까지 잡지의 목차부분에 실린 작은 컷 그림에서부터 단편 소설, 논픽션, 실화를 재구성한 기사 등에 삽화를 그렸다.

그리고 1941년 10월부터는 무인도에 장기간 표류했다 생환한 일본 선원들의 실화를 토대로 한 스가와 쿠니히코(須川邦彦)의

20) 다카바타케 카쇼 공식 홈페이지 ‘高昌華宵 大正ロマン館’
<http://www.kasho.org/>

21) 『쇼넨 쿠라부』, 1940년 11월호, pp.66-67. (부분)

연재소설 「무인도에 살아가는 16인(無人島に生きる十六人)」의 삽화를 전담하게 된다 <그림 6>.



그림 6. 무인도에 살아가는 16인²²⁾

「무인도에 살아가는 16인」은 1899년 일본의 범선이 난파되면서 선원 16명이 수개월 동안 작은 무인도에서 생활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다. 1943년 첫 번째 단행본이 출판된 이후 꾸준히 개정판이 출판되고 있을 만큼 작품성과 대중성에서 인정을 받은 소설이기도 하다. 「무인도에 살아가는 16인」에서 김용환은 거칠면서도 깊이 있는 펜 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역동적인 묘사를 보이는데 이와 같이 『쇼넨 쿠라부』에 실린 삽화들은 1930년대 작품보다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김용환은 「무인도에 살아가는 16인」의 연재가 끝난 후 1943년 12월부터 1944년 7월까지 오오바야시 키요시(大林清)의 연재소설 「애국 열혈 실화 - 말레이의 호랑이(マライの虎)」의 삽화를 담당한다 <그림 7>.

22) 『쇼넨 쿠라부』, 1942년 2월호, pp.102~103.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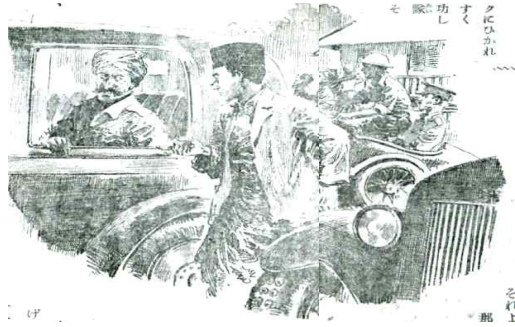


그림 7. 말레이의 호랑이²³⁾

「말레이의 호랑이」는 후쿠오카(福岡)출신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도적단을 조직 해 유명세를 떨친 후 일본 육군의 첩보원으로 활동 한 타니 유타카(谷豊)라는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소년 소설이다. 「말레이의 호랑이」의 연재가 끝 난 후에도 1945년까지 김용환이 그린 다양한 삽화가 『쇼넨 쿠라부』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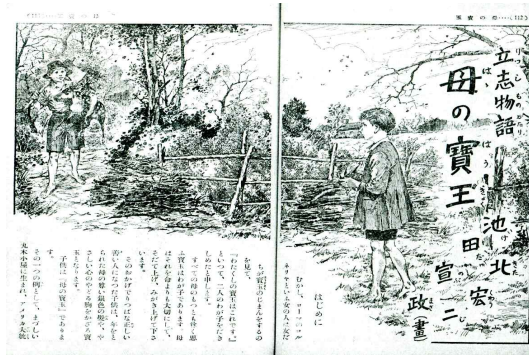


그림 8. 어머니의 보물²⁴⁾

『쇼넨 쿠라부』의 삽화를 그리던 무렵 김용환은 코단샤에서 발행한 다른 잡지에도 삽화를 그렸다. 코단샤의 ‘쿠라부’ 시리즈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쇼쥬 쿠라부(少女俱樂部)²⁵⁾』와 『요넨

23) 『쇼넨 쿠라부』, 1944년 2월호, pp.68-69. (부분)

24) 『쇼쥬 쿠라부』, 1940년 1월호, pp.112-113.

쿠라부(幼年俱樂部)』가 그것이다. 김용환은 『쇼조 쿠라부』에 연재된 이케다 노부마사(池田宣政)의 소설 「어머니의 보물(母の寶玉)」의 삽화를 그렸다 <그림 8>.

『쇼조 쿠라부』에 실린 삽화들은 『쇼넨 쿠라부』에 실린 삽화와 비교해 다소 선이 부드럽기는 하나 소년 잡지나 아동잡지에 실렸던 다른 삽화들과 비교 해 크게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요넨 쿠라부』는 『쇼넨 쿠라부』나 『쇼조 쿠라부』보다 조금 어린 연령대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로 소학교 학생인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잡지였다. 『요넨 쿠라부』는 연재소설의 삽화를 정기적으로 그렸던 『쇼넨 쿠라부』나 『쇼조 쿠라부』와 달리 비정기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실린 삽화의 양은 많지 않다.

위에서 언급된 잡지들 이외에 김용환은 1940년대에 발행된 몇몇 잡지에도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삽화를 선보였다. 쇼가쿠칸(小学館)에서 발행한 주간 아동지인 『쇼코쿠민노토모(小國民の友)』의 1944년 3월호와 5월호에 소설 삽화가 실렸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의 주간 아동잡지 『슈칸 쇼코쿠민(週刊小國民)』 1943년 12월호와 1944년 8월호에도 소설 삽화가 실렸다.

이러한 김용환의 활동은 해방되던 해인 1945년 2월 이후로 단절 되었고 1962년 1월 『쇼넨 쿠라부』에 실린 단편 소설의 삽화에서 다시 기타 코우지라는 필명을 찾을 수 있다. 1962년의 『쇼넨 쿠라부』 중 총6개호의 단편 소설에 김용환의 삽화가 실린 것이다 <그림 9>. 그리고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김용환은 오우분샤(旺文社)²⁵⁾에서 출간한 중학생용 학습 잡지인 『중학시대 3학년(中學時代三年生)』과 『중학시대 1학년(中學時代一年生)』 그리고 같은 잡지의 제목을 바꿔 새로 펴낸 『중1시대(中一時代)』 등의

25) 1923년 창간되어 1962년에 폐간된 『쇼조 쿠라부』는 당시 소녀 잡지를 대표하는 인기 잡지의 하나로 1937년의 발행부수는 49만부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 중 최고의 판매 부수를 보였다. 당시의 소녀잡지는 소년잡지와 마찬가지로 장편 소설과 시, 기사 등이 실렸고 인기 삽화가의 다양한 삽화가 함께 실렸다.

26) 당시 오우분샤는 교육 출판 분야에서 업계 1위를 다투는 출판사였다.

잡지 삽화를 그렸다. 1960년대 김용환의 삽화는 1940년대의 삽화에 비교 해 보면 선을 사용한 명암의 표현이 더욱 짙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은 더욱 사실적으로 그려졌고 무게감이 더해졌다.



그림 9. 암흑가 격멸²⁷⁾

김용환은 잡지뿐만 아니라 소설 단행본의 삽화를 담당하기도 했다. ‘코단샤 세계명작전집(講談社世界名作全集)’ 중 제6권 『소공자』와 37권 엠마 오르치 원작 『스칼렛 펴퍼넬(虹はこべ)』의 삽화를 담당 했다. 세계명작전집은 컬러 표지를 담당하는 작가는 따로 있고 각 권에 20컷이 넘는 삽화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삽화들 중 반 이상은 양쪽 페이지를 모두 사용한 커다란 컷으로 책에 실린 삽화의 비중이 큰 편이다. 특히 페이지 일부에 들어가 있던 잡지 삽화와 달리 페이지를 한 가득 채운 삽화에서는 전체 화면 구성에 있어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김용환은 카이세이샤(楷成社)에서 1941년에서 1948년 사이에 출판한 소년소설들의 삽화를 그렸다. 특히 『쇼쇼 쿠라부』를 통해 삽화를 담당했던 소설가 이케다 노부마사의 여러 소설 단행본에 삽화를 그렸다. 단행본의 삽화는 세계명작전집이나 소설책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순회: 청소년 과학이야기(自然科学をめぐる: 靑少

27) 『쇼쇼 쿠라부』, 1962년 4월호, pp.142~143.

年科学物語』, 『국방 과학도해 병기(国防科学図解兵器)』와 같은 과학 서적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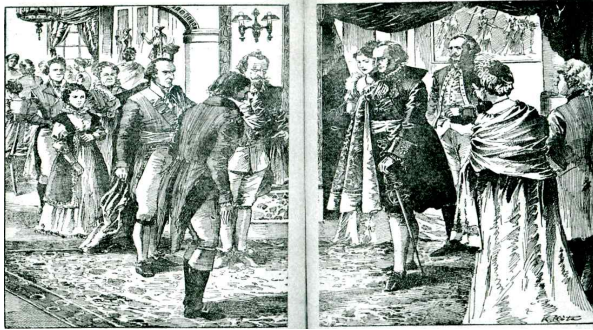


그림 10. 스칼렛 펄퍼넬²⁸⁾

3. 삽화가 기타 쿠투지의 평가와 그 한계

이와 같이 김용환은 독자의 연령과 성별이 다른 여러 잡지와 문학전집, 소설책, 과학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삽화가로 활동했다. 김용환이 당시 잡지에 그린 삽화들은 섬세한 펜 선으로 묘사된 뛰어난 작품들이다. 일류 출판사에서 펴낸 인기 잡지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작품을 실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젊었던 청년 김용환의 실력은 증명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0년대의 잡지에 실린 김용환의 작품에서는 『니혼쇼넨』보다 역동성이 살아 있고 펜 선의 묘사 또한 한결 깊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당시의 몇몇 인기 작가들은 잡지의 표지 혹은 잡지의 권두 화보를 담당하거나 잡지의 부록 디자인에 삽화가 활용되는 등 잡지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독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일부 인기 작가들은 그림뿐만 아니라 시와 노랫말과 같이 문학적인 부분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아 그림뿐 아니라 시와 칼럼 같은 분야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삽화가로서의 김용환은 잡지의 표지나 권두 컬러 화보처럼

28) Emmuska Orczy原作, 小山勝清著, 虹はこべ, 講談社, 1952 pp.98-99

삽화가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단독작품을 맡을 만큼 높은 인기를 누린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김용환은 일본에서는 삽화가로서만 활동했다. 한국에서 상당히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그러나 김용환이 활동 했던 잡지 중 『소년 쿠라부』와 『쇼조 쿠라부』는 당시의 다른 잡지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만화에 할애하는 지면을 늘렸고, 그 결과 일본 만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이 연재되기도 한 잡지이다. 『소년 쿠라부』에는 1931년부터 타가와 스이호(田河水泡)의 「노라쿠로(のらくろ)²⁹⁾」, 1933년부터는 시마다 케이조(島田啓三)의 「모험 단키치(冒険ダン吉)³⁰⁾」가 연재 되었고, 이들 작품의 높은 인기가 그대로 잡지의 인기로 이어졌다. 특히 「노라쿠로」의 단행본 10권은 150만부가 넘는 베스트셀러 였다³¹⁾. 이처럼 김용환이 활동했던 잡지는 일본 스토리 만화의 원형이 되는 작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김용환이 이들 작품과 작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만화가 인기 장르로 자리 잡기 시작 했지만 전쟁 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장편 스토리 만화가 등장하진 않았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1947년 테즈카 오사무(手塚治虫)의 단행본 『신보물섬(新宝島)³²⁾』이 등장하고 본격적인 스토리 만화의 시대가 시작 된다. 이와 함께 소년 소녀 잡지와 아동 잡지는 만화에 할애하는 지면을 늘렸고 잡지의 판형도 크게 바꾸는 등 읽을거리 보다는 만화와 화보 같은 시각적인 요소에 집중하기 시작 한다. 소녀 만화의 경우 일본 최초의 장편 소녀 만화로 평가 받고 있는

29) 노라쿠로라는 이름의 검은색 개를 주인공으로 의인화한 만화로 노라쿠로가 맹견 군대에 들어가 활약하는 내용이다. 1945년 이전의 만화로 드물게 장기 연재된 작품.

30) 소년 단키치가 우연히 표류해 간 섬나라에서 섬의 원주민들에게 왕으로 추대 받고 문명을 전하게 되는 내용의 만화.

31) 清水勲、年表 日本漫画史、臨川書店、2007、p.154~155.

32) 우연히 발견한 낡은 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내용의 만화. 기승 전결이 뚜렷한 장편 서사를 가진 최초의 일본 만화. 이후의 일본 만화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테즈카 오사무의 「리본의 기사(リボンの騎士)³³⁾」가 『쇼조 쿠라부』 1953년 1월호부터 연재되기도 했다. 「리본의 기사」의 등장 이후 소녀 잡지에도 기승전결이 분명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들이 늘어나며 소녀 잡지에 실리는 만화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이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는 스토리만화가 자리를 잡고 다양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만화들이 늘어나며 재능 있는 작가들이 활발히 등장 했던 시기로 전후 일본 만화사의 시작이 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 김용환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잡지가 삽화와 읽을거리 중심에서 만화를 중심으로 이동해 가고 있을 시기였다. 김용환이 한국에서와 달리 일본에서 만화가로서가 아니라 삽화가로서의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활동을 했던 것은 당시에는 만화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많은 작품이 연재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일본 최대 출판사의 하나인 코단샤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다양한 잡지의 삽화를 그렸고 유명 삽화가들이 기용 되었던 문학 전집의 삽화 작업도 했던 김용환은 삽화가로서 일정 부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역을 완벽하게 구축 한 몇몇 인기 작가만큼의 평가는 얻지 못했다. 삽화가 기타 코우지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용환의 삽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김용환이 그린 삽화의 상당수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용환이 활발하게 활동했을 당시 일본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출판물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당시의 일본 잡지들은 군국주의의 이상을 담은 내용이 많았고 소년 소녀, 어린이 잡지들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위대함을 독자들에게 주입 시키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검열이 엄격했던 시기로 군부의 통치 방침에 어긋나는 작

33) 당시의 소녀만화로는 드물게 장편 서사를 가진 작품이었다. 이후 소녀만화에 큰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품이나 잡지는 폐간되거나 휴간되던 시기였다. 아동잡지와 소년 소녀 잡지들의 상당수가 전쟁 중에 휴간되었고 일부 잡지만이 전쟁 중에도 발행 되었다³⁴⁾.



그림 11. 개가의 그늘에서³⁵⁾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1940년대 김용환의 작품은 군인의 모습이나 일본 군대의 모습을 그린 것이 많았다. 잡지에 연재되던 소설이나 기사의 대다수가 일본의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였다. 전쟁 영웅이나 군인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라든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시키는 사상을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 시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이 실렸다. 전쟁 전에는 다양한 기사와 소설, 시가 주로 실렸던 잡지들도 잡지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하게 잡지의 표지와 구성을 바꿨다. 화려한 패션 일러스트가 실리던 소녀 잡지는 군복과 작업복을 입은 소녀들로 표지가 바뀌었다³⁶⁾. 이 시기 김용환은 전쟁 무용담, 일본군의 영웅적인 행

34) 전시 하에서 일본 군부는 동종 잡지의 강제 통폐합을 단행 했다. 그 결과 1944년 한해에만 약 2천여 잡지가 폐간 되었다.

35) 『소학교 5학년(小学校五年生)』 1939년 1월호 pp.152-153 (부분)

36) 소녀잡지의 인기를 좌우했던 것은 서정화(抒情畫)로 불리던 당시의 삽화 였다. 이들 삽화는 화려한 의상의 소녀를 그린 것이 많았고 이들 잡지에 실린 소녀 그림은 당시 일본의 국가적인 지향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소녀를 대상으로 한 잡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삽화가 나가하라 준이치(中原淳一)는 자신의 화려한 그림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결

적, 침략지에서 일본군이 행한 미담을 소개한 글의 삽화를 그렸다.



그림 12. 평화의 수호³⁷⁾

일본 사회 전체에 군국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던 시기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 김용환이 삽화를 그린 제목을 일부 살펴보면 「수암의 일장기(岫巖の日章旗)」(『쇼고쿠민노 토모』 1944년 3월호), 「황군 인도에 진격 하다(皇軍インドに進撃す)」(『쇼넨 쿠라부』 1944년 5월호), 「바다의 침병 - 결사의 감시정(海の尖兵-決死の監視艇)」(『쇼넨 쿠라부』 1944년 8월호), 「대동아전쟁 이야기(大東亞戦争の話)」(『슈칸 쇼고쿠민』 1944년 8월호), 「항공 혈전기 필사의 투혼(航空血戦記 必殺の闘魂)」(『와카자쿠라(若櫻)』 1944년 9월호) 등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김용환의 호쾌하고 역동적인 삽화는 군인을 등장 시키는 강렬한 삽화에서 필력을 드러내며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 준다.

국 6년간 전속으로 표지화를 그렸던 잡지 『쇼죠노토모(少女の友)』 전속작가를 그만두게 된다. 坂本佳鶴恵「女性雑誌にみる, “女の子”の成立-少女文化から女の子文化へ-」, お茶の水女子大学人文科学記票 54巻 お茶の水女子大学, 2001 p.151

37) 『쇼넨 쿠라부』 1940년 11월호 p.1



그림 13. 황군 인도에 진격하다³⁸⁾

특히 김용환은 코단사에서 1944년 5월부터 1945년 6월까지 펴낸 청소년용 육군 잡지인 『와카자쿠라』에도 삽화를 그렸다. 잡지의 표지는 총검을 들고 군복을 입은 소년이나 전투기 등이 컬러로 그려져 있었고 잡지의 내용도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을 미화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는 것을 장려 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전쟁 전에 창간되었던 다른 잡지들과 달리 『와카자쿠라』는 잡지의 창간 목적 자체가 군국주의의 미화와 옹호, 그리고 청소년들의 입대 장려를 위한 잡지였다.

당시 일본의 국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능력을 전쟁을 위해 사용해야 했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김용환에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김용환의 꾸준한 일본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친일적 행적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김용환이 삽화가로 활동한 당시의 이력만을 두고 보면 이러한 친일적 행적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다. 당시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국민은 개개인이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 그리고 노동력을 국가를 위해, 정확히는 국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모아야 했다. 출판물은 내각정보국(內

38) 『소년 쿠라부』 1944년 5월호 p 5.

閣情報局)을 통해 관리 되었다. 내각정보국은 국가적 정보활동과 선전활동을 일원화 시켰고 언론과 보도에 관한 지도를 했다. 그리고 사단법인 일본출판문화협회를 관리감독 하며 출판물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다³⁹⁾. 이와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삽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김용환 에게는 어떤 작품을 그릴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편집부의 요구를 거스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이나 군국주의와 무관한 삽화를 그릴만한 매체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의 김용환의 행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1945년 2월 이후로 잠시 동안 일본의 잡지에서 기타 코우지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출판물에서 기타 코우지의 이름이 사라진 동안 김용환은 코단샤의 촉탁사원으로 당시 조선에서 활동한다. 코단샤의 소년병 교육 잡지인 『렌세이노토모(鍊成の友)』의 발행을 도운 것이다. 『렌세이노토모』에는 후일 김용환과 『만화행진』 발행에 참여 했던 김소운도 참여 했다. 그리고 김용환은 해방 직후 좌익 계열로 창간되었던 『중앙신문』의 만평작가로 활동하면서 남로당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이력 덕분에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후 김용환은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 북한군에게 서울이 점령당하자 공산당에 입당해 인민군 미술대에서 북한군의 홍보전단 그림을 그렸고 서울이 국군에게 수복된 후에는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되어 수감 생활까지 하게 된다⁴⁰⁾. 그리고 1959년부터는 미국군의 극동사령부 심리전과의 전속화가로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용환의 이력에 대해 손상익은 “이런 사상적 좌충우돌은 결국 초창기 작품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⁴¹⁾” 고 평가 한다.

39) 国立国会図書館リサーチ・ナビ, "本の万華鏡 第135回常設展示 戦時下の出版",

<http://rnavi.ndl.go.jp/kaleido/entry/jousetsu135.php#01-3>

40) 손상익, 앞의 책, pp.84-88.

41) 손상익, 앞의 책, p.88.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기타 코우지로서 김용환의 작품을 수집하고 분석 했다. 김용환은 해방 후 한국 만화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시사만화에서 어린이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여러 작가들을 모아 만화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용환은 일본에서 기타 코우지라는 필명의 삽화가로 활약했다는 부분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김용환은 일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삽화가였지만 인지도나 인기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용환이 군국주의를 미화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많은 잡지의 삽화를 그렸다는 것도 밝혀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출판 검열과 통제를 통해 국가의 뜻을 거스르는 출판물은 존재하기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김용환의 친일적인 작품 성향은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이 연구를 발전 시켜 기타 코우지 혹은 김용환의 작품 세계와 그 평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일본에서의 활동이 이후의 한국 활동과 작품에 미친 영향, 즉 삽화가 기타 코우지로서의 경험이 만화가 김용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을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던 김용환의 일본 활동에 대한 실증과 사료의 발굴, 그리고 앞으로의 좀 더 깊이 있는 김용환 연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라는 부분에서 본 논문의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기준, 『박기준의 한국만화야사』, 부친만화정보센터, 2009.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하』, 시공사, 1998.

부천만화정보센터 엮음, 『코주부 김용환의 재발견 - 三八線 블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 『현실문화연구』, 2005.

이용철, 「한국현대만화의 선구자, 코주부 김용환」, 『金海文化』, 통
권 제26호(2008), pp.39~48.

김영환, 「국내 최초 만화 단행본 ‘토끼와 원숭이’ 공개」,
『한겨레 뉴스』, 2012년 6월 21일,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39079.html

채지은, 「'고바우 영감' 등 만화 3편 등록문화재 지정」,
『한국일보 뉴스』, 2013년 2월 8일,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302/h2013020821031991560.h
tm](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302/h2013020821031991560.htm)

Emmusk Orczy原作, 小山勝清著, “虹はこべ”, 講談社, 1952.

清水勲, “年表 日本漫画史”, 臨川書店, 2007.

坂本佳鶴恵, “女性雑誌にみる「女の子」の成立－少女文化から女の子文化
へ－”, お茶の水女子大学人文科学記票 54巻, お茶の水女子大学,
2001 pp.149~158.

実業之日本社, 日本少年, 1935. 3, 5, 8, 1936. 3, 1937. 8
講談社, 少年倶楽部, 1940. 11, 1942. 2, 1944. 2, 5, 1962. 4
講談社, 少女倶楽部, 1940. 1
小学館, 小学5年生, 1939.1
高島華宵大正ロマン館, <http://www.kasho.org>
上田信道の児童文学ホームページ, <http://nob.internet.ne.jp>, 上田信道
“大衆少年雑誌の成立と展開－明治期「小国民」から大正期「日本少
年」まで－” 国文学, 2001. 5.
国立国会図書館リサーチ・ナビ, “本の万華鏡 第135回常設展示 戦時下の
出版”,
<http://rnavi.ndl.go.jp/kaleido/entry/jousetsu135.php#01-3>
Wikipedia Japan, <http://ja.wikipedia.org>, 검색어 : 川端画学校, 2013
년 8월 1일
Artscape, <http://artscape.jp>, 검색어 : 帝国美術学校, 2013년 8월 1일

ABSTRACT

A Study on Kim, Yong-Hwan's Works of Art in Japan: Focusing on the Illustrations between 1930s and 1940s

Kim, So-Won

Kim, Yong-Hwan is a one of the South Korean major cartoonists between 1940s and 1960s. Kim, Yong-Hwan drew a variety of genres from children's cartoon to current-affair cartoon. Furthermore, Kim, Yong-Hwan took the lead in publishing cartoon magazine and newspaper after the Independence, and has been highly appreciated as a pioneer of Korean cartoon. Kim, Yong-Hwan created many works in the fields of illustrations, Oriental painting, history painting, caricature, etc. After going study for painting to Japan, Kim, Yong-Hwan made his debut as an illustrator called Kita Koji in Japan.

However, not much is known about his works in Japan, only there is a simple data about his Japan period and some pieces of illustration during Japan years. In this paper, I examined in detail about Kim, Yong-Hwan 's work activity in Japan which has been little known in Korea for a long time. I studied on illustrations in magazines and books which he drew in the name of Kita Koji, on the basis of the data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I could know that Kim, Yong-Hwan worked actively in a diversity of publishers and magazines. In addition, I could realize that many magazines in which Kim, Yong-Hwan drew illustrations were very popular ones. This demonstrates that Kim, Yong-Hwan was much recognized in Japan for his talent. However, a large number of Kim, Yong-Hwan' s illustrations were published from late 1930s to mid-1940s. This period was the years that Japan concentrated all her energy for World War II. All the publishing were severely censored during this period. A majority of publishing in this period supported Japanese militarism, and glorified Japan's war policy. Kim, Yong-Hwan's illustrations were no exception, too. It was really sorry about his activity during his Japan period. This essay means a lot to a field of cartoon studies in terms of a collection of materials during Kim, Yong-Hwan 's Japan period. Besides, I think

that henceforth,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a follow-up study on Kim, Yong-Hwan' work and his broad background.

Key Word: Kim Yong-Hwan, Kita Koji, Korean cartoon/comics, Manhwa

김소원
리츠메이칸 대학교 박사
(133-755)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89-1 105동 1004호
Tel : 010 - 5652 - 5452
pilly77@naver.com

논문투고일: 2013.11.01
심사종료일 : 2013.11.27
게재확정일 : 2013.11.27